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방문

고창소방서(서장 시주형)는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양승문, 박성희)가 5일 고창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성공적 운영을 격려하는 응원 방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에서 예방순찰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앞선 7월 2일과 10일에는 고창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순찰, 안전계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조, 이용객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소방서, 전북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 실시

순창소방서는 6일 임실군 소재 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 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를 실시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캠프에는 (북)도실원 순창어린이집 원아 21명과 지도교사 2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19안전체험관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지진·연기 대피체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119 신고요령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직접 체험하며 익혔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행동하는 방법과 생활 속 안전습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도교사들도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위기대응 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경찰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추진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6일 정읍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 동영상 시청 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을 이용하여 실제 실습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까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의 편리성과 이해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복싱팀, 전국체전 출전권 22장 따냈다

총 22명 선수 선발, 10월 제주 전국체전 메달 사냥 나서

우석대학교 스포츠단 복싱팀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지역별 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22명의 출전 선수를 배출하며 전국 정상급 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우석대학교는 최근 열린 전국체육대회 지역별 최종 선발전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기도 등 5개 시·도 대표로 모두 22명의 선수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 6명, 세종특별자치시 3명, 전라남도 2명, 경기도 1명이 각각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전북 대표에는 남자 대학부 홍지성(-55kg), 김태오(-60kg), 조성현(-65kg), 민인승(-70kg), 최규인(-80kg), 박동주(-90kg)가 선발됐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장시은(-51kg), 류해린(-54kg), 김승현(-65kg), 김서은(-75kg)이 출전한다. 충북 대표에는 남자 대학부 신시호(-60kg), 김영안(-90kg), 김정오(+90kg)와 여자 일반부 이서연(-54kg), 홍국비(-65kg), 이예진(-75kg)이 선발됐다. 세종 대표에는 송의섭(-50kg), 임중현(-70kg), 최유빈(-80kg)이 출전하며, 전남 대표에는 황제하(-65kg), 이찬혁(-75kg), 경기 대표에는 양운성이(-55kg) 전국체전 무대에 오른다. 특히 전북 대표 김태오는 이번 전국체전 메달 기대주로 꼽힌다. 김태오는 지난 3월 열린 2026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준결승 도중 왼손 부상을 당하고도 결승전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는 투혼을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윤범수 감독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치열한 지역별 선발전을 통과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훈련과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석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 /오상근 기자

전북 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 정읍, 전문 강사 양성 본격화

환경교육사 3급 필기시험 대비 교육 진행

정읍시환경교육센터가 지역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과 활동가, 예비 강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3급 필기시험 대비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환경교육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는 ‘2026 환경교육사 양성 지원사업’의 하나다. 교육은 지난 3일 ‘환경과 철학’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모두 15차례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환경교육사 3급 필기시험 과목에 맞춰 △환경

과 철학 △환경교육론 △환경생태학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등 5개 이론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센터는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함께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자격을 취득한 수강생 가운데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대상자에게 자격 취득 비용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수강생들은 앞으로 정읍 지역 학교와 지역단체, 사회환경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보절면,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 추진

남원시 보절면은 8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은천, 도촌, 벌촌 마을을 시작으로 서당, 부흥마을 등 관내 25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면장을 비롯해 팀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 시정 주요 사업과 지역 내 추진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마을간길 포장, 용매수로 정비 등 2026년 보절면 주요 시책 사업을 설명하고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남원시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은 담당자와 면장이 함께 직접 확인하고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 확산 막아

남원소방서는 지난 8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도통동 자동차 찌뎡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 상인의 기지와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화재는 찌뎡 업체 작업장 천장 부근의 전선에서 불길에 피어오르며 시작,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찌뎡 업체 대표는 치솟는 연기에 크게 당황하여 119에 신속히 신고한 후 밖으로 뛰어나와 다급히 본인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침착하게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진압했다. 이번 도통동 화재 사례는 화재 상황에서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때 이웃의 도움 및 평소 비치해 둔 소화기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남원소방서는 이웃의 재산을 내 것처럼 지켜준 시민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1점포 1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남원경찰서(서장 문영상)는 지난 5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안전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에 벌점 10점 부과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최신 교통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결혼이민자 12명 대상이며, 수업 마지막 차시에는 수업을 진행한 교통경찰이 차량운행 등을 지원, 언어별 출장 학과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원영'이라고도 불렸다. 원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원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